베드로전서 강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라 (벧전4:1~6)

반태효 목사 / 2000. 8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복이며, 그것을 몸소 보여준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온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핍박이 오고 박해를 당하면 힘이 듭니다. 육체의 고난이 오면 그것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고난은 그저 육체의 고난일뿐입니다.

고난이 오면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에 눌려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비록 힘든 것이지만 그것은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복 중의 복은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은 겉을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은 고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불순물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제거하십니다. 더럽고 악한 것을 제하고 우리의 죄를 끊게하는 놀라운 복이 고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가치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치관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있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치없고 의미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하는 열매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좋게 보여서 그만 시험이 되고맙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이 좋은줄 모르고 버려야 할 것을 좋은줄 알고 따라갑니다.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도 우리가 땀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요사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품위있고 성숙해지기보다는 더욱더 육신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신처럼 떠 받듭니다. 육체를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생각에 찬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쓸 데 없는 고생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흘려야 할 땀과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땅에서 우리 자신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땀흘리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땀흘리고 수고한 열매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고난 앞에서 실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영혼의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육신의 고난을 피하지 말 것을 더욱 권면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육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은 살아납니다.

마음을 강하게 지키십시오. 고난과 세상의 도전 앞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고난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하게 되고 은혜받은 때는 편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경건하고 온유하고 성령충만해졌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http://file.onnuritv.com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품어서 입니다. 우리가 험한 길 가는 인생의 여정동안 언제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좇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도 있고 재앙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로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무가치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육신의 정욕은 영혼의 마약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즐거움이 처음만 같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함은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이라는 죄를 살펴봅시다.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없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하게 스스로는 성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술취함과 연락과 방탕에 빠집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은 날마다 연락에 빠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것밖에는 없게 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오직 그런 것들만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다른 쾌락을 찾아갑니다. 추구하는 것의 종류가 다를뿐입니다. 이런 죄들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술취하면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면 술취하게 된다는 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음란, 술취함 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특징은 음란과 방탕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취함과 음란에 빠지면 자신의 영혼이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점을 모를뿐입니다.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에 빠지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맙니다. 그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운 짐과 불안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함이 없어 냉정해집니다.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생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몸에 좋다는 것 찾아다니고 맛있다는 데 찾아다니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는데 열심이어서는 안됩니다.

육신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자신이 절제 해야합니다. 육신이 자신을 제어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먹지 않아야 할 때는 결단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적게 잤더라도 일어나야 할 시간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평소에 경건한 생활습관으로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육신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충만해도 육신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쳐서 육신의 수고와 힘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섬기는데도 우리의 몸이 힘들어야 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을 살펴봅시다. 운동은 적당히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는 몸이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휴가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풀어놓고 지나치게 안락함을 추구하면 영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좀 늦게 예수 믿고 더 놀고 더 즐길 것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즐겨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나게 즐긴 시간일수록 후회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시간을 돌이킨다면 더 땀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했어야만 했다고 후회하게 됩니다.

마약과도 같은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뒤돌아본 자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가 시작은 잘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1,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서는 도중하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힘이 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데마가 그 마지막 순간을 참고 인내했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실족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 성령충만한 사람도 타락하고 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안팎으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50일만에 완성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이루는 고속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 니느웨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신앙생활속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거름과 같습니다. 거름은 모아놓으면 썩고 악취만 풍깁니다. 그러나 흩어서 뿌리면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쌓아놓으면 자신을 망가뜨리고 부패시키고 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조금만 해보고 그만둘거야. 다른 이들도 다 하잖아. 나도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해보아야만 해'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방탕은 '극한'상황으로 갑니다. 죄를 알아야 죄를 이깁니다. 방탕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정욕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이 가져도 지식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정욕은 우리 영혼을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작은 쾌락은 큰 쾌락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극을 추구하다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극한으로 끌고 갑니다.

정욕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방탕과 정욕은 끊지 못합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이 망가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재건하는 데는 1백50여년이 걸립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이루어 집니다. 다시 세우는데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만 망쳤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즐겼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탕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어두움의 그늘을 남깁니다.

의인 비난하는 죄의 속성

그리고 이 방탕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는 동성연애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건한 사람을 소수로 만들어 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악의 전도자가 되고 사단의 사냥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자신의 죄악에 끌어들이다가 실패하면 욕을 하고 비방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욕합니다. 그 비방앞에서 같이 맞서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죄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세상은 그런 이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맞서지 마십시오. 그 비난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방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이들에게 협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다른 이들의 방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조롱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 때, 결단하고 헌신할 때 교회 안에서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신할 때 손해보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면 처음에는 비난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놀라며 진실함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친히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중보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것은 육체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달음질치게 되고 성령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대가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고,주 따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